



남녀 대학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자아존중감과 성적 자기주장과의 관계: 성별의 차이

김보미¹ · 박정숙²

안동성소병원¹, 고신대학교 간호대학²

Relationships among Parent-child Communication, Self-esteem and Sexual Assertiveness for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Gender Difference

Kim, Bo-Mi¹ · Park, Jung Suk²

¹Andong Sungso Hospital, Andong

²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Bus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child communication, self-esteem and sexual assertiveness for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Methods:** This descriptive study used a comparative survey design that utilized self-report questionnaires. A total of 470 participants were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B metropolitan city. **Results:** The degree of open communication use was higher for female students in comparison to male students,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dysfunctional communication for both the father-child communication.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males and females for the mother-child communication either. The degree of self-esteem was higher for male students in comparison to the female students. The degree of sexual assertiveness was higher for female students in comparison to the male students. The grade, religion, major, allowance source, marital status of parents, and relationship experience with opposite sex were influencing factors for the male students' sexual assertiveness whereas the individual's major and physical contact were influencing factors for the female students. **Conclusion:** Self-esteem and mother-child open communication were influencing factors of sexual assertiveness. Thus, the nursing intervention based on the influencing factors is needed in order for male and female students to express sexual assertiveness.

Key Words: Parent-child communication, Self-esteem, Sexual assertiveness, University students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성에 대한 개방적 가치관 및 문화의 유입과 더불어

다양한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 성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와 지식이 범람하면서 성에 대한 행동 기준을 갖지 못하거나 불안한 상태에서 성을 경험할 수 있다[1]. 대학생의 성경험 조사 연구에 따르면 남자대학생 40.0%, 여자대학생 8.1%가 성경험이 있으며, 대학생의 33.6%가 원치 않은 성경험, 17.6%가

주요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성적 자기주장, 대학생

Corresponding author: Park, Jung Suk

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34 Amnam-dong, Seo-gu, Busan 602-703, Korea.
Tel: +82-51-990-3978, Fax: +82-51-990- 3031, E-mail: cooler1978@kosin.ac.kr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고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of 축약본임 .

- This article is a condensed from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Kosin University.

Received: Dec 3, 2014 / **Revised:** Dec 15, 2014 / **Accepted:** Jan 21, 201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원치 않는 임신경험, 20.3%가 인공유산경험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2]. 따라서 대학생들은 자신의 성적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자율성인 성적 자기주장을 가져야 한다.

성적 자기주장은 원치 않는 성적인 상황에서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며[3], 원치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성 접촉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4]. 성적 자기주장이 높으면 이성교제 중 원치 않는 성행위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이성교제 시에 여성 자신이 성적인 존재로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고[4], 성적 자기주장이 낮으면 원치 않는 성적인 상황에서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아진다[5].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 관련 요인에는 의사소통 유형, 자아존중감 등이 보고되고 있다[4].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별, 전공,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적 자기주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이는 남학생의 성 개념이 행위 중심적인 점에 비해, 여학생들은 성행동의 결과가 원치 않는 임신, 인공유산, 성병감염 등 여성의 몸에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스스로가 자기 몸을 돌보고 대처하고자 실천적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6]. 이러한 성가치관의 바탕으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성적 자기주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통로가 되는 전달매체로써[7], 특히 인간관계 중 부모와 자녀관계는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다[8].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생활지도 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모든 의사소통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내·외적 태도나 행동을 의미한다[8].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이 개방적일 때 부모-자녀 간의 성에 대한 대화가 더 잘 일어난다고 보고되었고[9],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은 자녀의 성태도 및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7].

한편 성적 자기주장과 관련된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존중해주는 자신에 대해 느끼는 태도이다[10].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성적 자기주장을 낮게 초래하여 원치 않는 성 접촉과 이성교제간의 성 접촉의 경험에 노출된다[11].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4]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성적 자기주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 관련 자기주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 따라서 성적 자기주장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생과 청소년의 성적 자기주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성적 자기주장의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자아존중감, 성적 자기주장과와의 관계를 비교한 논문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과 성적 자기주장과의 관계를 비교해 봄으로써, 남녀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을 높이기 위한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녀대학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과 성적 자기주장 정도와의 관계를 비교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성별에 따라 대상자의 제 특성을 비교한다.
-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 정도를 성별에 따라 비교한다.
- 대상자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과 성적 자기주장 정도를 성별에 따라 비교한다.
- 대상자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과 성적 자기주장 정도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비교한다.
-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별에 따라 비교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과 성적 자기주장과의 관계를 비교하기 위한 비교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자는 B광역시 소재의 3개 대학의 만 18세 이상 만 25세 이하의 미혼인 남녀 대학생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적절한 대상자 수를 산출하기 위해 G*Power 3.1.5 프로그램[12]을 이용하여, 유의수준(α) .05, 중간정도의 효과크기(f^2) .15, 검정력(1- β) 95%, 예측변수 15개를 가정하여 양측검정을 하였을 때 회귀분석에 필요한 적정 대상자는 199명이었

다. 설문지는 517부를 배부하여 500부가 회수되었으며 무성
의한 답변을 한 30명을 제외하고 남학생 252명, 여학생 218명
으로 총 470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측정도구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PACI)
[13]의 한글 번안한 도구[14]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개
문항으로 개방적 의사소통 10문항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각각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의 1점
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다. 도구범
위는 최소 20점에서 최고 100점까지이며 개방적 의사소통점
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 의사소통 점수가 낮을수록 부모-자
녀 간 의사소통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
발 당시 Cronbach's $\alpha = .85$ 였고,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Cronbach's $\alpha = .95$ 였고 하위영역에서 부-자
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은 Cronbach's $\alpha = .92$, 부-자녀 간 역
기능적 의사소통은 .75, 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81, 모-
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77이었다.

2)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자아존중감은 자아존중감 척도[15]의 한글 번안한 도구[8]
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개 문항으로 긍정적 문항 5개
와 부정적 문항 5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이다.
도구범위는 최소 10점에서 최고 40점까지이며, 부정적인 문
항은 역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85였고, 본 연구에서는 .78이었다.

3) 성적 자기주장 측정도구

성적 자기주장은 성적 자기주장 척도(Sexual Assertiveness
Scale)[16]의 수정·보완한 도구[4]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원치않은 성 접촉 시의 거절 관련 6개 문항과 성 접
촉 시에 임신과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콘돔 사용 관련 6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
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다. 도구범위는 최소
12점에서 최고 60점까지이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
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82$ 였고, 본 연구

에서는 .91이었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9월 2일부터 동년 9월 16
일까지였다. 자료수집은 B광역시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
회에서 승인(IRB No.: 1040549-130829-SB-0040-02)을 받은
후, 연구자가 대상자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에게 직접 연구목
적, 방법, 대상자의 권리 등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대
상자에게 설문지를 주어 직접 작성하도록 하여 자료를 수집하
였다.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임을
설명 하고, 설문지 작성 후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자료분석방법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
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제 특성 비교는 χ^2 -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 성별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 정도 비교는
t-test, ANOVA Scheffé's test로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 성별 대상자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과 성
적 자기주장 정도는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 성별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제 특성 비교

대상자의 제 특성을 비교한 결과 학년, 종교, 형제순위, 형제
유무, 부 연령, 모 연령, 부 직업, 부모님의 결혼상태, 이성교제
경험, 이성교제 시 신체접촉 경험 유무는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연령($\chi^2=52.90$ $p<.001$), 전공계열
($\chi^2=62.49$, $p<.001$), 주거형태($\chi^2=27.86$, $p<.001$), 한 달
용돈($\chi^2=9.89$, $p=.007$), 용돈출처($\chi^2=11.69$, $p=.003$), 지각
하는 부모님의 성태도($\chi^2=25.84$, $p<.001$), 어머니의 직업 유
무($\chi^2=60.73$ $p=.024$), 어머니의 직업 형태($\chi^2=11.47$, $p=$
.009), 이성교제 시 신체접촉의 유형($\chi^2=57.05$ $p<.001$)은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

Table 1.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by Gender

(N=470)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Male (n=252) | Female (n=218) | χ^2 | P |
|--------------------------------------|-----------------------------|--------------|----------------|----------|--------|
| | | n (%) | n (%) | | |
| Age (year) | 18~19 | 40 (15.9) | 47 (21.6) | 52.90 | < .001 |
| | 20~21 | 66 (26.1) | 74 (33.9) | | |
| | 22~23 | 70 (27.8) | 78 (35.8) | | |
| | ≥24 | 76 (30.2) | 19 (8.7) | | |
| Grade | 1 | 53 (21.0) | 50 (22.9) | 2.47 | .481 |
| | 2 | 79 (31.3) | 58 (26.6) | | |
| | 3 | 75 (29.8) | 61 (28.0) | | |
| | 4 | 45 (17.9) | 49 (22.5) | | |
| Religion | Yes | 117 (46.4) | 100 (45.9) | 0.15 | .904 |
| | No | 135 (53.6) | 118 (54.1) | | |
| Major | Humanities/social science | 132 (52.4) | 67 (30.7) | 62.49 | < .001 |
| | Natural science/engineering | 80 (31.7) | 144 (66.1) | | |
| | Arts/physical education | 27 (10.7) | 2 (0.1) | | |
| | Theology | 13 (5.2) | 5 (2.3) | | |
| Residence | With family | 110 (43.6) | 115 (52.8) | 27.86 | < .001 |
| | Live alone | 105 (41.7) | 44 (20.2) | | |
| | Dormitory/live with others | 37 (14.7) | 59 (27.0) | | |
| Monthly allowance (10,000 won) | 30~50 | 164 (65.1) | 122 (56.0) | 9.89 | .007 |
| | < 30 | 60 (23.8) | 80 (36.7) | | |
| | > 50 | 28 (11.1) | 16 (7.3) | | |
| Financial sources | Parents | 132 (52.4) | 148 (67.9) | 11.69 | .003 |
| | Part-time work+parents | 92 (36.5) | 53 (24.3) | | |
| | Part-time work | 28 (11.1) | 17 (7.8) | | |
| Perceived sexual attitude of parents | Average | 153 (60.7) | 126 (57.8) | 25.84 | < .001 |
| | Open | 64 (25.4) | 26 (11.9) | | |
| | Closed | 35 (13.9) | 66 (30.3) | | |
| Birth order | Youngest | 96 (38.1) | 68 (31.2) | 2.69 | .442 |
| | Eldest | 87 (34.5) | 85 (39.0) | | |
| | Middle | 43 (17.1) | 43 (19.7) | | |
| | Only child | 26 (10.3) | 22 (10.1) | | |
| Sibling | No | 26 (10.3) | 28 (12.8) | 2.75 | .431 |
| | Yes | 226 (89.7) | 190 (87.2) | | |
| Father's age (year) (n=462) | < 50 | 33 (13.1) | 30 (13.8) | 0.77 | .962 |
| | 50~60 | 205 (81.2) | 173 (79.5) | | |
| | ≥ 60 | 12 (4.8) | 10 (4.7) | | |
| Mother's age (year) (n=464) | < 50 | 98 (39.3) | 99 (45.8) | 2.64 | .267 |
| | 50~60 | 146 (58.6) | 115 (53.2) | | |
| | ≥ 60 | 5 (2.1) | 2 (9.0) | | |
| Father's occupation (n=462) | No | 6 (2.4) | 3 (1.4) | 27.25 | .951 |
| | Yes | 244 (97.6) | 210 (98.6) | | |
| Job category (n=244) | Professionals | 33 (13.1) | 29 (13.8) | 5.53 | 1.37 |
| | Office workers | 97 (38.5) | 84 (40.0) | | |
| | Production, sales workers | 69 (27.5) | 43 (20.4) | | |
| | Business owners | 45 (17.9) | 54 (25.8) | | |
| Mother's occupation (n=464) | No | 85 (34.1) | 81 (37.5) | 60.73 | .024 |
| | Yes | 164 (65.9) | 135 (62.5) | | |
| Job category (n=164) | Professionals | 21 (8.3) | 24 (11.0) | 11.47 | .009 |
| | Office workers | 43 (17.0) | 45 (20.6) | | |
| | Production, Sales workers | 76 (30.2) | 37 (17.0) | | |
| | Business owners | 24 (9.5) | 29 (13.4) | | |
| Marital status of parents | Married | 235 (93.2) | 200 (91.7) | 3.30 | .508 |
| | Divorced/separated | 12 (4.8) | 10 (4.6) | | |
| | Widowed | 5 (2.0) | 8 (3.7) | | |
| Dating experience | No | 15 (6.0) | 23 (10.6) | 7.22 | .125 |
| | 1 | 77 (30.6) | 52 (23.9) | | |
| | 2~3 | 90 (35.7) | 92 (42.1) | | |
| | ≥ 4 | 70 (27.7) | 51 (23.4) | | |
| Physical contact during dating | No | 2 (0.8) | 4 (2.1) | 1.13 | .286 |
| | Yes | 235 (99.2) | 191 (97.9) | | |
| Type of physical contact (n=235) | Light physical contact | 14 (6.0) | 18 (9.4) | 57.05 | < .001 |
| | Hug, kiss, caress | 52 (22.1) | 112 (58.7) | | |
| | Sexual intercourse | 169 (71.9) | 61 (31.9) | | |
| Military status | Fulfilled | 149 (59.1) | - | | |
| | Unfilled, exempted | 103 (40.9) | | | |

2.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 정도 비교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 정도를 남학생 여학생으로 나눠서 볼 때, 남학생은 학년($F=3.57, p=.015$), 종교($t=4.43, p<.001$), 전공계열($F=4.28, p=.06$), 용돈출처($F=5.60, p=.04$), 부모님의 결혼상태($F=4.25, p=.015$), 이성교제 경험($F=5.41, p<.001$), 이성교제 시 신체접촉을 경험한 경우($F=9.69, p<.001$), 병역상태($F=-1.36, p=.006$)에 따라 성적 자기주장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은 전공계열($F=5.19, p=.002$), 이성교제 시 신체접촉을 경험한 경우($F=10.28,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정을 한 결과, '2학년'이 '1학년' 보다 남학생의 성적 자기주장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종교는 '없음'이 '있음'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전공계열은 '신학계열'이 '인문사회계열'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용돈출처는 '부모님'이 '아르바이트'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부모님의 결혼 상태는 '혼인유지가' '이혼 또는 별거'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이성교제 경험은 '없음', '1명'이 '2~3명'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성교제 시 신체접촉 경험한 경우는 '포옹, 키스, 가슴'과 '가벼운 스킨십'이 '섹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여학생의 성적 자기주장 정도에서는 전공계열은 '자연계열'이 '인문사회계열'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이성교제 시 신체접촉을 경험한 경우는 '가벼운 스킨십'이 '섹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able 2).

3. 대상자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성적 자기주장 정도 비교

대상자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정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여학생의 개방적 의사소통 정도는 평균 35.65 ± 7.32 로 남학생의 평균 33.12 ± 8.34 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t=-3.43, p=.001$). 그러나 역기능적 의사소통 정도는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51, p=.131$). 대상자의 모-자녀 간 의사소통 정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개방적 의사소통정도($t=-0.78, p=.435$)와 역기능적 의사소통 정도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01, p=.313$).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남학생의 평균 점수는 32.53 ± 4.05 로 여학생의 점수 31.75 ± 3.33 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t=2.65, p=.008$).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 정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여학생이 평균 52.12 ± 5.66 로 남학생 41.24 ± 9.91 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t=-14.30, p<.001$)(Table 3).

4. 대상자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과 성적 자기주장 정도의 관계 비교

대상자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과 성적 자기주장 정도의 관계 비교는 Table 4와 같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모든 변수 간 상관관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정도, 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성적 자기주장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001$). 또한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성적 자기주장과는 서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1$).

5.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 비교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제 특성에서 성적 자기주장 정도와 관련이 있었던, 남학생의 종교유무, 학년을 더미처리한 변수와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자아존중감의 변인에 대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은 성적 자기주장에 가장 높은 관련을 보이는 요인은 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으로 성적 자기주장을 2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을 추가하였을 때 29%,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추가하였을 때 34%, 종교를 추가하였을 때 36%,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추가하였을 때 3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가장 높은 관련을 보이는 요인은 자아존중감으로 성적 자기주장을 1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모-개방적 의사소통을 추가하였을 때 1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자기주장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학생은 모-개방적 의사소통이, 여학생은 자아존중감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 정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과 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으로 나타났다. 즉, 성적 자기주장 정도에 자아존중감과 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은 주 영향요인으로 볼 수 있다(Table 5).

논 의

남녀 대학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자아존중감과 성

Table 2. Comparison of Sexual Assertiveness by Gender

(N=470)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Male (n=252) | t or F (p) | Female (n=218) | t or F (p) |
|---|--|--------------|------------------------------|----------------|----------------------------|
| | | M±SD | Scheffé | M±SD | Scheffé |
| Age (year) | 18~19 | 38.95±11.84 | 2.64 (.050) | 53.65±6.69 | 2.45 (.064) |
| | 20~21 | 43.75±9.80 | | 52.52±5.31 | |
| | 22~23 | 41.60±9.42 | | 51.01±4.84 | |
| | ≥ 24 | 39.94±9.42 | | 51.31±6.53 | |
| Grade | 1 ^a | 38.64±11.08 | 3.57 (.015) a < b | 53.92±6.48 | 2.70 (.060) |
| | 2 ^b | 43.73±9.86 | | 51.68±6.00 | |
| | 3 ^c | 41.61±8.54 | | 50.96±4.10 | |
| | 4 ^d | 39.33±9.85 | | 52.24±5.73 | |
| Religion | Yes | 38.37±9.04 | 4.43 (< .001) | 52.64±5.50 | -1.24 (.745) |
| | No | 43.73±9.99 | | 51.68±5.71 | |
| Major | Humanities/social science ^a | 39.78±10.73 | 4.28 (.006) a < d | 50.13±4.11 | 5.19 (.002) a < b |
| | Natural science/engineering ^b | 42.11±8.30 | | 53.12±6.05 | |
| | Arts/physical education ^c | 41.92±8.71 | | 52.20±5.54 | |
| | Theology ^d | 49.38±8.86 | | 46.50±2.12 | |
| Residence | With family | 40.37±9.51 | 0.79 (.454) | 52.40±5.94 | 0.46 (.636) |
| | Live alone | 42.05±9.98 | | 51.45±5.38 | |
| | Dormitory/live with others | 41.54±10.93 | | 52.06±5.34 | |
| Monthly allowance (10,000 won) | 30~50 | 40.85±9.19 | 1.73 (.179) | 52.09±5.28 | 0.02 (.983) |
| | < 30 | 43.16±10.97 | | 52.20±6.09 | |
| | > 50 | 39.42±11.29 | | 51.93±6.54 | |
| Financial sources | Parents ^a | 42.95±9.63 | 5.60 (.004) b < a | 51.93±5.53 | 1.28 (.279) |
| | Part-time work+parents ^b | 38.56±9.38 | | 53.07±5.45 | |
| | Part-time work ^c | 42.00±11.31 | | 50.82±7.20 | |
| Perceived sexual attitude of parents | Average | 41.08±9.78 | 2.72 (.670) | 52.26±5.54 | 0.09 (.910) |
| | Open | 43.10±9.69 | | 52.03±5.02 | |
| | Closed | 38.40±10.39 | | 51.89±6.17 | |
| Birth order | Youngest | 40.36±9.64 | 1.66 (.175) | 53.22±5.81 | 2.20 (.089) |
| | Eldest | 40.04±11.7 | | 50.74±5.76 | |
| | Middle | 43.00±9.41 | | 51.94±5.62 | |
| | Only child | 39.69±8.96 | | 51.13±4.35 | |
| Sibling | No | 39.34±8.84 | 1.03 (.311) | 51.35±5.41 | 0.76 (.483) |
| | Yes | 41.46±10.02 | | 52.23±5.70 | |
| Father's age (year) (n=462) | < 50 | 40.57±10.25 | 0.11 (.898) | 55.30±4.58 | 0.11 (.898) |
| | 50~60 | 41.26±9.72 | | 51.54±5.60 | |
| | ≥ 60 | 42.00±12.73 | | 52.90±6.47 | |
| Mother's age (year) (n=464) | < 50 | 41.52±10.60 | 0.03 (.972) | 52.83±5.74 | 0.02 (.972) |
| | 50~60 | 41.23±9.35 | | 51.60±5.57 | |
| | ≥ 60 | 41.80±11.90 | | 47.70±4.24 | |
| Father's occupation (n=462) | No | 44.00±9.73 | 0.69 (.530) | 54.66±4.04 | 0.78 (.403) |
| | Yes | 41.13±9.92 | | 52.10±5.66 | |
| Job category (n=244) | Professionals | 41.69±10.26 | | 52.58±7.21 | |
| | Office workers | 41.90±9.14 | | 52.61±4.91 | |
| | Production, sales workers | 40.81±10.45 | | 50.51±5.53 | |
| | Business owners | 39.57±10.58 | | 52.31±5.84 | |
| Mother's occupation (n=464) | No | 41.47±8.96 | 0.12 (.060) | 51.77±5.28 | -0.69 (.261) |
| | Yes | 41.30±10.35 | | 52.33±5.91 | |
| Job category (n=164) | Professionals | 44.28±10.48 | | 55.00±6.40 | |
| | Office workers | 40.58±10.52 | | 51.31±6.10 | |
| | Production, sales workers | 41.27±10.42 | | 50.37±5.48 | |
| | Business owners | 40.08±9.85 | | 54.20±4.25 | |
| Marital status of parents | Married ^a | 41.71±9.70 | 4.25 (.015) b < a | 52.10±5.70 | 0.55 (.947) |
| | Divorced/separated ^b | 33.66±10.62 | | 52.70±5.07 | |
| | Widowed ^c | 37.40±11.97 | | 52.00±5.97 | |
| Dating experience | No ^a | 46.4±12.04 | 5.41 (.001) c < a, b | 54.50±5.98 | 1.11 (.344) |
| | 1 ^b | 43.83±9.46 | | 52.25±4.87 | |
| | 2~3 ^c | 38.73±9.69 | | 52.44±5.31 | |
| | ≥ 4 ^d | 40.52±9.28 | | 50.94±6.75 | |
| Physical contact during dating | No | 40.00±2.82 | -0.13 (.893) | 54.50±7.18 | 0.90 (.642) |
| | Yes | 40.92±9.74 | | 51.94±5.60 | |
| Type of physical contact (n=235) | Light physical contact ^a | 40.00±2.82 | 9.69 (< .001) c < a, b | 55.05±6.87 | 10.28 (< .001) c < a |
| | Hug, kiss, caress ^b | 46.50±8.93 | | 52.74±5.08 | |
| | Sexual intercourse ^c | 39.25±9.65 | | 49.57±5.32 | |
| Military status | Fulfilled | 40.55±9.23 | -1.36 (0.06) | - | |
| | Unfilled, exempted | 42.29±10.83 | | | |

Table 3. Comparison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Self-esteem and Sexual Assertiveness by Gender (N=470)

| Variables | Male (n=252) | Female (n=218) | t | p |
|----------------------------|--------------|----------------|--------|-------|
| | M±SD | M±SD | | |
| Father-child communication | | | | |
| Open communication | 33.12±8.34 | 35.65±7.32 | -3.43 | .001 |
| Dysfunction communication | 24.53±6.06 | 23.72±5.34 | 1.51 | .131 |
| Mother-child communication | | | | |
| Open communication | 37.96±8.38 | 38.52±6.84 | -0.78 | .435 |
| Dysfunction communication | 23.99±6.24 | 23.43±5.45 | 1.01 | .313 |
| Self-esteem | 32.53±4.05 | 31.75±3.33 | 2.65 | .008 |
| Sexual assertiveness | 41.24±9.91 | 52.12±5.66 | -14.30 | <.001 |

Table 4. Relationships among Parent-child Communication, Self-esteem and Sexual Assertiveness according to Gender (N=470)

| Variables | Self-esteem | | | | Sexual assertiveness | | | |
|----------------------------|--------------|-------|----------------|-------|----------------------|-------|----------------|-------|
| | Male (n=252) | | Female (n=218) | | Male (n=252) | | Female (n=218) | |
| | r | p | r | p | r | p | r | p |
| Father-child communication | | | | | | | | |
| Open communication | .46 | <.001 | .29 | <.001 | .42 | <.001 | .21 | <.001 |
| Dysfunction communication | -.43 | <.001 | -.26 | <.001 | -.31 | <.001 | -.26 | <.001 |
| Mother-child communication | | | | | | | | |
| Open communication | .40 | <.001 | .29 | <.001 | .50 | <.001 | .25 | <.001 |
| Dysfunction communication | -.42 | <.001 | -.19 | <.001 | -.41 | <.001 | -.19 | <.001 |
| Self-esteem | 1 | | 1 | | .43 | <.001 | .37 | <.001 |

Table 5. Factors predicting Sexual Assertiveness according to Gender (N=470)

| Gender | Variables | β | t | p | Adjusted R ² |
|----------------|--|------|-------|-------|-------------------------|
| Male (n=252) | Mother-child open communication | .54 | 4.83 | <.001 | .25 |
| | Self-esteem | .26 | 4.66 | <.001 | .29 |
| | Father-child dysfunction communication | -.53 | -4.84 | <.001 | .34 |
| | Religion (1=no) | -.16 | -3.12 | .002 | .36 |
| | Mother-child dysfunction communication | -.30 | -2.60 | .010 | .38 |
| Female (n=218) | Self-esteem | .31 | 4.91 | <.001 | .13 |
| | Mother-child open communication | .18 | 2.86 | .005 | .16 |

적 자기주장의 관계 비교 연구로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남녀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은 여학생 평균이 52.12 ± 5.66로 남학생 평균 41.24 ± 9.91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을 연구한 연구에서 여학생이 평균 49.36 ± 8.18 (도구범위: 12~60)로 나타난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4]. 중, 고, 대학생들

대상으로 성적 자기주장을 연구한 연구에서 여학생이 평균 50.62 ± 6.22 (도구범위: 12~60)로 남학생 평균 40.03 ± 7.73 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고[17],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적 자기주장은 여학생이 평균 55.41 ± 6.92 (도구범위: 28~74)로 남학생 평균 51.76 ± 7.20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6].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남녀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의 정도는 남학

생보다는 여학생이 높게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2005년에 성적 자기주장을 연구한 결과[4]보다는 2013년에 성적 자기주장을 연구한 결과[6,17]와 본 연구 연구결과가 모두 더 높게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성개방화 시대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음과 남녀 대상자에 따라 성적 자기주장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도구는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여성을 위주로 생각하고 체크하도록 만들어진 문항으로 여학생 보다 남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동일한 상황에서 체크할 수 있는 성적 자기주장의 척도가 개발된다면, 더욱 의미 있게 성적 자기주장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남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남학생이 32.53 ± 4.05 로 여학생 31.75 ± 3.33 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 결과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연구한 결과에서 남학생 평균 35.78 , 여학생 평균 34.93 으로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18].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남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아존중감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변수의 하나로[19],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자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정신건강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20] 자아존중감도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남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비교한 선행연구가 부족하므로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남녀 대학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정도는 여학생의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평균은 35.65 ± 7.32 (도구범위: 10~50)로 남학생의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은 평균은 33.12 ± 8.34 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남학생의 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평균은 37.96 ± 8.38 이었고, 여학생의 평균은 38.52 ± 6.84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 결과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대학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연구한 결과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의 평균 34.20 (도구범위: 10~50),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평균 27.10 의 결과와 유사하였다[18].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대학생은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며, 남자대학생과 여자대학생 모두 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 내에서 주 양육인이 어머니이고,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남녀 대학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비교한 선행연구가 부족하므로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남녀 대학생의 제 특성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 정도는 남학생은 학년, 종교, 전공계열, 용돈출처, 부모님의 결혼상태, 이성교제 경험, 이성교제 시 신체접촉 정도, 병역 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여학생은 전공계열, 이성교제 시 신체접촉을 경험한 경우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특성들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학년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 정도는 '2학년'이 '1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6]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4]에서 학년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결과와는 달랐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성가치관은 성인이 된 후에는 크게 바뀌지 않아서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남학생의 종교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 정도는 종교 '없음'이 '있음'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4],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종교와 성 태도를 연구한 결과[21]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를 세분화 하지 않은 점과, 종교를 있음과 없음으로만 나누었기에 본 연구결과와는 다른 맥락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남학생의 전공계열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 정도는 '신학'이 '인문사회'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육체적 쾌락의 절제를 요구하는 신학과의 특성으로 성적 자기주장 정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남학생의 용돈출처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은 '부모님'이 '아르바이트'보다 유의하게 높았지만,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4]. 이는 각 지역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남학생의 부모님의 결혼 상태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은 '혼인유지'가 '이혼 또는 별거'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남학생의 이성교제 경험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은 '없음', '1명'이 '2~3명'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성교제 '1명'군이 '4명'군보다 높았고, 이 두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4]. 이는 이성교제 경험이 많을수록, 이성교제 시 발생하는 성과 관련된 경험으로 인해 성적 자기주장이 조금씩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여학생의 전공계열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 정도는 '자연계열'이 '인문사회계열'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보건 및 인문계열'이 '예체능 및 공과계열'보다 성적 자기주장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4]. 이러한 결과는 보건계열이 자연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인문계열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여학생의 이성교제 시 신체접촉을 경험한 경우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 정도는 '가벼운 스킨십'이 '섹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경험 유무에 따라 성경험이 없는 군이 성경험이 있는 군보다 성적 자기주장 정도가 높았던 결과(4)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6) 성경험이 없는 학생이 성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성적 자기주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성교 경험이 있을수록 원치 않는 성 접촉에 대한 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남녀 대학생의 제 특성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 정도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은 상이한 차이가 나타나볼 수 있었고, 남녀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 정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인 공통된 특성은 전공계열과 이성교제 시 신체접촉을 경험한 경우였다. 이에 남녀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제 특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더 깊은 반복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대상자의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정도와 자아존중감 정도의 관계는 남학생이 $r = .46$ 으로 여학생 $r = .29$ 보다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상자의 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정도와 자아존중감 정도의 관계도 남학생이 $r = .40$ 으로 여학생 $r = .29$ 로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대학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정도과 자아존중감정도의 관계를 보는 연구가 없어서 직접 비교하기 어려우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남학생에게는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여학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요인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더 깊은 반복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정도과 자아존중감 정도의 관계는 남학생이 $r = -.43$ 으로 여학생 $r = -.26$ 보다 더 강한 역상관관계를 보였다.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정도과 자아존중감정도의 관계도 남학생이 $r = -.42$ 로 여학생 $r = -.19$ 보다 더 강한 역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대학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정도과 자아존중감정도의 관계를 보는 연구가 없어서 직접 비교하기 어려우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강한 역상관관계를 가지므로, 남학생에게는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줄이면서 자아존중감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여학생의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요인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줄이면서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더 깊은 반복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정도과 성적 자기주

장정도의 관계는 남학생이 $r = .42$ 로 여학생 $r = .21$ 보다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정도과 성적 자기주장정도의 관계도 남학생이 $r = .50$ 으로 여학생 $r = .25$ 보다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남녀 대학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정도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를 보는 연구가 없어서 직접 비교하기 어려우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강한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남학생에게는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과 성적 자기주장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여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하는 다른 관련요인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여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더 깊은 반복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정도과 성적 자기주장정도의 관계는 남학생이 $r = -.31$ 로 여학생 $r = -.26$ 보다 더 강한 역상관관계를 보였다.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정도과 성적 자기주장정도의 관계도 남학생이 $r = -.41$ 로 여학생 $r = -.19$ 보다 더 강한 역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남녀 대학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정도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를 보는 연구가 없어서 직접 비교하기 어려우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적 자기주장과 의사소통 유형 중 비난형 $r = -.09$, 산만형 $r = -.13$ 이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여대생의 일반적 의사소통을 유형을 본 것이기(4), 본 연구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를 바탕으로 성적 자기주장을 증진시키는 요소에는 의사소통 유형 중에서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남학생은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줄이면서 성적 자기주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여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하는 다른 요인에 대해서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성적 자기주장 정도의 관계는 남학생이 $r = .43$ 으로 여학생 $r = .37$ 보다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성적 자기주장 정도의 관계가 $r = .09$ 로 나타난 결과와 상이하였다(4). 즉,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4)보다 본 연구결과가 통계적으로 더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현대의 대학생들이 과거의 대학생 보다는 자기애적인 성향이 더 강해지고, 자신의 중요성, 유능함, 가치 등을 더욱 높게 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남학생에게는 성적 자기주장과 자아존중감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여학생의 성적 자기주장

에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를 찾아내는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next, 남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부-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종교,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있었으며, 여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과 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이 있었다.

남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을 살펴보면, 이는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본 연구에서도 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의 비율이 가장 높게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22]. 이러한 결과는 주 양육인이 어머니이고, 가정 내에서 어머니와의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을 더욱 증진시켜 성적 자기주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면, 대상자의 성별은 다르지만,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도 성적 자기주장과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며[4] 본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남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 중에서도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여 남학생의 바람직한 성적 자기주장을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재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종교를 살펴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도 '있음'이 '없음'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4], 종교를 가진 학생들이 종교를 갖지 않은 학생보다 성적 자기주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종교가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하는 요소임을 고려하여 성적 자기주장을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재방법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살펴보면, 남녀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본 연구가 없어서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하지만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성적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인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어려워 성적자기주장에 영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적 자기주장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 중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정적 강화요인으로 영향

을 미치는 뚜렷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남학생의 바람직한 성적 자기주장을 위한 효과적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증진 간호중재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도 성적 자기주장 관련요인 중 자아존중감이 성적 자기주장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며[4] 본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남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과도 동일한 결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여학생의 바람직한 성적 자기주장을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재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을 살펴보면,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어머니는 가정 내에서 주 양육인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성가치관이 혼란한 시대에 생활전반과 성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같은 성별인 여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남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과도 동일한 결과로 나타나 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정도가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여 여학생의 바람직한 성적 자기주장을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재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부산 지역의 남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편의추출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거나 확대 해석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남녀 대학생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의 차이를 비교하였고 남녀 대학생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남학생에게는 성적 자기주장과 자아존중감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여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를 찾아내는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남녀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제 특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더 깊은 반복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규명된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남녀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을 높여 주기 위한 간호중재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결론

본 연구는 남녀대학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과 성적 자기주장 정도와의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 B광역시

소재의 3개 대학의 만 18세 이상 만 25세 이하의 미혼인 남녀 대학생 470명을 편의 모집하였다. 연구결과, 남녀 대학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자아존중감과 성적 자기주장과의 관계 비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적 자기주장이 유의하게 높게 나왔고, 두 집단 간 성적 자기주장 정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인 공통된 특성은 전공계열과 이성교제 시 신체접촉을 경험한 경우였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다소 강하게 나타났다. 성적 자기주장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규명된 관련요인들을 반영하여 남녀 대학생을 위한 성적 자기주장 중재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또한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 관련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겠다.

REFERENCES

1. Chang SB. Development of sexual autonomy measurement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2;8(1):106-115.
2. Sohn AR, Chun SS. Comparing sexual attitude, sexual initiation and sexual behavior by gender in Korean college students.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2005;18:73-100.
3. Muehlenhard CL, Linton MA. Date rape and sexual aggression in dating situations; Incidence and risk fac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87;34(2):186-196.
4. Choi MH. Factors influencing sexual assertiveness among women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2005.
5. Park SM, Song WY. The effects of rape myth and tolerance towards violence on dating to the sexual assertiveness in college women.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12;17(2):265-280.
6. Kim YH, Moon ST, Kang HS. Factors influencing on sexual assertivenes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3;19(3):166-175.
7. Kim JY. The analysis of sexual attitude and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by communication style [master's thesis]. Seou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5.
8. Kim HS. *New education psychology*. Seoul: Hanol; 2003.
9. Fisher TD. Characteristic of mothers and fathers who talk to their adolescent children about sexuality. *Journal of Psychology and Human Sexuality*. 1991;3(2):53-70.
10. Song HS. A study of college students in the relationship among sexuality, self-assertiveness and self-esteem [master's thesis]. Jinj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06.
11. Lee SK.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sexual contacts and self-esteem, self-assertiveness of teenage girls who have or had boyfriend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1;7(2):212-228.
12.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Lang AG.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2009;41(4):1149-1160.
13. Barnes HL, Olson DH.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1985;56(2):438-447.
14. Min HY. Circumplex model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Focusing on the adolescents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1990.
15. Rosenberg M.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1979.
16. Morokoff PJ, Quina K, Harlow LL, Whitmire L, Grimley DM, Gibson PR, et al. Sexual assertiveness scale for wom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7;73(4):790-804.
17. Chu AR. Sexual assertiveness and codependency: Students from various educational levels [master's thesis]. Jeonju: Jeonju University; 2013.
18. Bae JY. The study on mental health of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6;15(3):308-317.
19. Lee YJ. An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on suicidal ideation. [master's thesis]. Busan: Dong-A University; 2010.
20. Jung MY. A study of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spiritual well-being and mental health to establish spirituality courses for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2012;6(3):721-741.
21. Han NC.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sexual attitud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2010;44(5):114-138.
22. Kim KM. Marital conflict,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friendship quality of adolescents [master's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10.

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College women's sexual assertiveness maybe related to factors such as communication styles, self-esteem, individual major, sex-role stereotype, or self assertiveness.

■ **What this paper adds?**

Female students' sexual assertiveness appeared higher than those for male students. Factors of highest influence on sexual assertiveness for male was identified as open communication between mother-child, and self-esteem for girls.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Nursing interventions targeted towards sexual assertiveness for male and female students based on influencing factors identified in this study will be most effective.